

광주 우미건설·전남 제일건설 시공능력평가 ‘1위’

ECONOMY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지역업체 16개사 전국 100위권 올라

전문건설은 지형건설·도양기업 1위

광주·전남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 9개·전남 7개 업체가 전국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100위권에 들었다.

광주에서는 우미건설이 2조2482억원으로 1위(전국 21위)였으며 중흥토건이

1조836억원으로 2위(42위), 대광건설이 1조548억원으로 3위(43위)를 기록했다. 우미건설은 전국 순위가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하며 지난해까지 광주 1위를 지켰던 중흥토건을 제쳤다.

이어 라인산업(9765억원·45위), 모아주택산업(5366억원·63위), 우미개발(5366억원·63위), 미래도건설(3799억원·76위), 보광종합건설(3281억원·85위),

디에스종합건설(2744억원·95위)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제일건설이 2조6947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전국 17위)를 차지했고 금호건설이 2조279억원으로 2위(전국 24위), 라인건설이 9558억원으로 3위(전국 46위), 중흥건설은 5476억원으로 4위(전국 62위)를 기록했다.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4200억원 이상(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영기준)인 1등급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1, 2위 업체인 제일건설과 금호건설의 전국 순위는 각각 2계단, 4계단 하락

했다.

또 금광기업 3782억원(전국 77위), 비에스산업 2855억원(전국 94위), 위본건설 2592억원(전국 100위) 등 순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조달청 공사의 경우 입찰 규모별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는 광주의 ㈜지형건설과 전남의 도양기업㈜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1351개, 전남 4250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 광주에서는 ㈜지형건설이 평가액 1451억84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도양기업㈜이 평가액 1872억31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광주지역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5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고, 전남지역에서는 기반조성포장 공사업 관련 6개사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여수·순천·동광양~김해공항

금호고속, 오늘부터 노선 확대

금호고속은 내달 1일부터 전남 동부권에서 출발하는 김해공항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해공항행 여수발 출발시간은 오전 4시, 순천발 출발시간은 오전 3시40분·4시50분, 동광양(중마) 출발시간은 오전 4시15분·5시25분이다.

김해공항행 여수행 출발시간은 오전 9시, 순천·동광양행은 오전 7시45분·9시 운행할 예정이다. 소요 시간은 김해공항 기준으로 여수 3시간10분, 순천 2시간20분, 동광양 1시간45분이다.

예매는 ‘티머니고(GO)’ 앱을 통해 상·하행 모두 가능하다. 상행은 코버스 홈페이지와 ‘고속버스터미널’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공업생산 광주 늘고 전남 줄어

지난 6월 광공업 생산량이 광주는 증가하고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26.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 증가했다.

전기장비(53.6%), 담배(76.3%), 자동차(18.1) 등이 증가하고 고무 및 플라스틱(-39.9%), 기계장비(-22.0%), 금속가공(-31.5%)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2.2% 늘어났다. 전기장비(64.0%), 자동차(4.5%), 담배(80.9%)가 증가하고 기계장비(-29.1%), 고무 및 플라스틱(-37.3%)이 줄었다.

전남의 경우 광공업 생산지수는 103.4로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4.3%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83.5%), 1차 금속(1.0%), 석유정제(1.7%) 등이 늘어나고 화학제품(-6.6%), 기타운송장비(-22.4%), 전기장비(-42.7%) 등이 크게 줄어 생산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광공업 출하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0.5%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22.7%), 석유정제(-3.4%), 비금속광물(-6.9%)은 감소했지만 기계장비(120.8%), 화학제품(3.4%), 1차 금속(7.6%) 호조로 소폭 늘었다. 송대웅 기자

“산정지구 주택공급 재조정해야”

광주상의, 국토부 건의
공급과잉 수급 불균형

세대 수 대폭 줄이고
공공임대·분양 전환

광주상공회의소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에 현행 계획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산정지구 개발계획의 공급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택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4000세대(공공임대 7000, 민간분양 6800, 단독주택 200)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상의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이 어려운 대규모 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

회하고 있고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 확대는 시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2754세대), 재개발·재건축(3만1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2만9343세대) 등 약 14만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이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급은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1~2인 가구 중심의 구조변화 속에서 외곽 대단지 공급은 실수요와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산정지구 개발이 광주시가 지향하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 정비형 주택공급’ 방향과 상충하며 외곽 신도시 위주의 대규모 공급은 도시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간 관리체계에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공급 과잉의 여파로 지역 건설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도 강조했다. PF자금 회수 지연, 수주 감소, 유동성 악화 등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고스트패스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은 31일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광주시 북구에 소재한 혁신제품 지정기업 주식회사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상반기 주택착공 ‘167가구’ 그쳐

작년보다 95.8% 급감...분양 1만2115→1146가구

상반기 광주지역 주택 착공물량이 167가구에 그쳤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동기보다 50.7% 급감한 2341가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주택 착공물량은 1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8가구)보다 95.8% 급감했다.

전남은 지난해 4744가구에서 2341가구로 50.7% 줄었다.

분양도 광주가 지난해 상반기 1만2115가구에서 1146가구로 90.5% 감소했으며 전남이 294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0% 감소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물량은 6월 광주가 4000가구 이상 몰리면서 상반기 누계는 6886가구로 40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지난해 상반기 3735가구에서 5125가구로 37.2% 증가했다.

거래는 6월 한달 광주지역 주택 매매의 경우 1704건으로 전월비 13.2%, 작년동월비 20.9% 각각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1804건으로 전월비 2.9%, 작년동월비 2.5% 각각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광주가 전월보다 1가구

감소한 1297가구, 전남이 506가구 감소한 3280가구로 조사됐다.

전국 주택 착공과 분양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줄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14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6만5631가구)이 8.1%, 지방(3만7516가구)은 32.8% 줄었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6만796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 감소했다.

인허가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인허가물량을 끌어내렸다. 수도권 인허가(7만3959가구)가 22.7% 늘었지만, 지방(6만4497가구)은 28.0% 줄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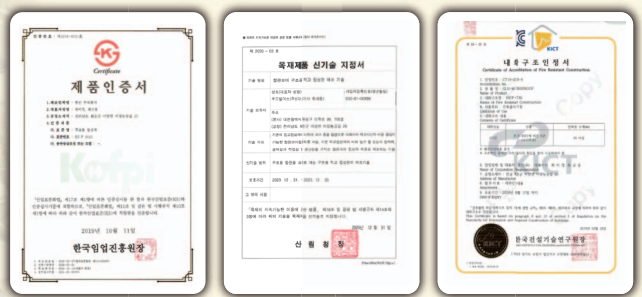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나눔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Ltd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교대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